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새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해를 맞이한 전 세계 지구촌이 믿음보다는 어두운 소신들이 더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인간의 끊임없는 죄 때문임을 깨달아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복음의 나팔수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사리로다 (시편 37편 5-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6호 2013년 1월 1일 (화)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신년 칼럼

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2012년이 지나고 2013년 새해가 다가왔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인생여정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샌디 태풍이 미동북부를 초토화시키더니 이곳저곳에서 가슴 쓸어내리는 총기난사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율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마가 다녀갔다!”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 후 다니엘 몰로이 코네티컷 주지사가 말한 탄식이다. 지난 12월 14일 오전 9시30분, 불과 10여 분 사이에 6, 7세의 전전한 어린이 20명과 6명의 교직원들이 악마의 총탄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목숨을 건 교직원들의 용감한 대응으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학교 교실로 뛰어들어 반자동소총으로 사람들을 사살한 악마 역을 한 자는 20세 청년인 아담 렌자이다. 그는 집에서 어머니를 사살하고, 자기 어머니가 교사로서 있는 학교 어린이들과 6명의 교사들을 사살한 후 자기도 자살하였다.

총기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은 독립국가 이전에 ‘황야의 무법지’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기 방어를 위하여 총기소유가 허락되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거의가 총기를 갖는 습관에 젖어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그 곳이 사무실이면 거리의건 집이건 상점이면 총을 들고 싸우는 장면으로 가득하다. 마치 자방이나 하듯이... 그래서 총기소유와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이는 것에 대한 쾌감을 갖는 성품들로 인격이 형성된 것 같다.

아담 렌자 어머니 낸시도 총기수집에 취미가 있었고 집안에 여러 종류의 총기가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사격 연습도 다녔다. 낸시는 자기 보호를 위해 구입한 그 총기가 자신과 그 아들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의 강력한 의지를 역설했다. 뉴욕 시장과 주지사

등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총기규제 의지를 피력하였다. 역사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전 미국과 세계를 경악케 하는 총기남용 문제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의 정답을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해커비 목사는 “살인마가 주로 학교를 찾아 무차별 살상하는 이런 사건은 미국이 하나님을 학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교육의 실패라는 의미이다.

사실 미국은 케네디 이후 학교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제거하도록 강요하였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대륙에 상륙한 후 모든 학교 교육의 내용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경외함으로 받는 축복에 대하여 강한 신앙교육을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술장사로 부를 축적한 가정에서 성장한 천주교인인 케네디가 대통령의 권좌에 앉으면서 그 하나님을 축출하는 강력한 교육정책을 시도해 백악관과 국회, 학교, 군부대에서 하나님 없는 교육, 성경 없는 교육, 기도 없는 교육을 하게 하고, 그곳에 세속적 실용주의 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자유주의와 무신론과 이단들이 들어와 사탄의 유희장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 없는 학교, 성령이 없는 학교는 오늘날 사탄의 활동무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짝은 천재지변 등 지구촌 마지막을 암시하는 여러 징표들이 연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탄의 노리개로 내어주는 것에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미지의 소중한 우리 인생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의 말씀의 손을 굳게 붙잡고 승리와 축복 속에 달려가는 행통의 기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신년 시

성령과 함께 가는 교회



고훈 목사 | 안산제일교회

거룩한 기름이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메마른 이 땅에 흘러 덮어
떨어진 양무리들
풍성한 꿀들로 살찌고
서로 마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목장의 평안이 있게 하소서

따뜻한 바람이여
하늘로부터 쉬지 않고 불어와
얼어붙은 빈자의 속살 녹이고
우는 자의 가슴 눈물을 씻게 하소서

뜨거운 불꽃이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내려와
시기와 질투 교만과 오만
절망과 좌절 불충과 나태
허물과 편견과 오류의 누더기들을
남김없이 뜨겁게 태우소서

하여
성령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모든 것이 더하는
2013년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신년설교
김성길 목사 2면



2013년 신년메시지 3면
4면
5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교육
김혜천 목사 8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갈...
조진모 목사 9면



미국의 동성결혼에 대한...
새라김 사모 10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blessings and joy of this Christmas
be with you throughout the coming year

발행인 장영춘 목사 외 미주크리스천신문 직원 일동

The Korean Christian Press

신/년/설/교

제목: 성도가 사는 법 The Way of Christian Life (마태복음 6장 33-34절)



김성길 목사 (시온소교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떠났으며 현존하는 인류들만도 약 70억이 지구촌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며, 지문은 더욱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다른 것은 그들의 개성, 취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과 개성과 바람에 따라서 그들의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즉 천인천색(千人千色), 만인만색(萬人萬色)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 사람과 현존하는 70억 이상의 사람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손들 모두를 다 합쳐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의식주의 해결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6:31-32)"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식주 해결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 고아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들은 먼

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으며(사43: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구원해주셨습니다(엡1:3-6). 그러므로 소 요리문답 제1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 창세기 16장 12절 이하를 보면 믿음의 족장 이삭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에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때에 잘 나오던 물이 아버지 때에 세상을 떠나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때에는 나오던 물이 왜 내 때에는 나오지 않는가? 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26:12-13)" 당해(當該)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하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22절을 보면 복을 받았다 하면 쫓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받으면 단련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단련을 받고, 심지어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군대장관을 끌고 와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어낸다'는 말처럼 이방 나라에서 온 이민자가 그 나라에서 거부가 되니까 위협요소가 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 다니던 이삭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브엘세바까지 쫓겨 갔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창26:23).

이삭은 준사막지역인 그 땅에서

인간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물을 얻고자 가는 곳마다 우물부터 팅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파는 대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자리인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제단에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창26:12-22) 제일 먼저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면 그 옆에 장막을 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제일 먼저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치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후에야 제단 옆에 장막을 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자로 먼저 섰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팅으며 물을 얻었습니다"(창26:25).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장관과 더불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는 '이삭이여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문안할 때 이삭이 처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뭘 하러 왔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방인 이민자 2세 이삭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쫓겨 다니는 당신의 뒷모습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당신을 해(害) 하다가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서 화친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일행 모두를 환영하며, 웅성한 대접을 하고, 하룻밤을 묵을 수 있도록 하여 이튿날 떠나도록 대접 했습니다.

도시국가 형태의 작은 나라에서 국왕 아비멜렉이 이방인 이민자 이삭과 친구가 되었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이삭은 그 후로 고난과 핍박 시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브엘세바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된 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던 것을 나중에 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열 두 지파가 십자가 형태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척주의 장로교회의 신앙 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는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을 쳤을 때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며, 40년간 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뜻을 지을 것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기워 신기 위해서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해달의 가죽으로 성전 지붕을 덮는 지붕 마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 때에 흑자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마포로 성막을 지면 옷은 무엇으로 만들지?' '우리가 해달의 가죽을 다 갖다 바치면 성전은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신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신 것만 아니라 발도 부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자들이 어떻게 행하였나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들이 아직 한 밤은 메이플라워라 배에 있고, 한 밤은 플리머스 항구에 닿았을 때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내린 것입니다.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헌법을 제정할 때 필라델피아 국회의사당에서 어느 나라의 헌법을 모범(母法)으로 해서 미합중국의 헌법을 제정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 벌이다, 끝이 나지 않자 정회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도실에서 모두 기도하고 속회 했을 때 국회의장이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고 회무를 처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두 쾌히 승낙했고 마침내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읽었던 유명한 성경이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설계한 백악관이 준공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입주 테이프를 끊고 난 후 곧바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않고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제 이후로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때 존 아담스가 드린 기도가 지금까지 미국 지도자의 도덕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늦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왕이 모든 백성 앞에 엎드려서 경배 하였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

천번제의 시조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소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 제단에 엎드린 솔로몬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감동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주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구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대하1:11-12).

오직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씀대로 못 살아 가는 것이 문제이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려면 하룻밤 사이에도 거부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 먼저 구할 것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림: 1월 5일자는 정기휴간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865-0009 (대표) (323) 865-9025 (광고국)
Fax: (323) 865-0056 (편집국) (323) 8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제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식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 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일 시 : 2013년 1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 ▶ 장 소 : 한 미 장 로 교 회(929 S. West lake Ave., L.A., CA 90006)
- ▶ 문 의 : 교 회 (213)739-8824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이운영 목사 (취임회장)



김영대 목사 (이임회장)

회 장 단

- 회 장: 이운영
수석부회장: 정종운
부 회 장: 백지영 강순영 강종민 고재원 김기동 김병용 김상선 김선국 김영석 김원락 장희선 김 철 박만순 박병구 박은중 서요한 박후식 심명구 안광식 염규용 오유석 이성도 이완재 이우형 이철훈 이춘준 임의치
- 총 서 무: 광부환
회 기: 박성재
회 계: 서종운
회 감 사: 고주모 이흥현

신년메시지 2013년 새해를 맞으며...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뉴욕교협 회장 **김중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상처 가운데 치료자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교만가운데 겸손으로, 미움가운데 사랑으로, 불의 가운데 진리로... 그동안 멀리 떠났던 마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성탄절을 지내고 201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합니다.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쫓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애굽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며 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어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삽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예수님과 같이 은유와 겸손함으로 십자가지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새해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만사(萬事)는 신통(神通)입니다!

오렌지카운티교협회장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시위를 떠난 활이 팽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날아가 버리듯이 2012년 다사다난했던 12개월, 365일이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그리고 세계가 분주했던 것처럼 그 어느 해보다 바빠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많은 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봅니다. 나는 부끄러운 것이 많았지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한 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3년여를 애태우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마련한 예배당에 임당한 것이 큰 감사거리입니다. 임당하는 날, 그리고 교수들과 같이 손님들을 맞아 함께 기쁨을 나누던 날,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새 예배당에 새가족들이 하나 둘씩 찾아드는 것 역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학교를 졸업하고 여건이 쉽지 않은 직장이라도 취직된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대단히 설교하기 어려운 히브리어로 인해 현명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가장 선명한 책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감격에 빠지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도 나도 건강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병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 고마운 일입니다. 모든 것 돌아볼 때 지난해를 살아온 하루하루가 고마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안이숙 여사의 찬송 가사처럼 내일일도 모르는데 어찌 새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일은 난 몰라도 가는 길은 알아요, 라는 그의 마지막 절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또한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드셔서 새해에도 잘 살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고통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목적인 지점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기로 작심하고 순명(順命)한다면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다시 한 번 주님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전도의 줄, 지역 사회와 세계를 섬기려는 사랑의 줄, 다시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만사(萬事)는 신통(神通)입니다!

희망을 이루고 성공하는 새해

성결월드미션 총재 **박재호**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2013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미주 크리스천신문 독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1년 365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신 소중한 시간의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판가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허송세월을 가장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거나 허송세월 하지 말고 금보다 귀한 시간을 아껴야겠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성공은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큰 꿈과 희망이 있어도 힘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희망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희망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빌2:13).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중에 어두움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도 사업도 생활도 푸른 나무와 같이 계속 번영하여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목은혜의 좋지 못한 일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좋은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새 일을 행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야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40:31)라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생수와 축복의 강이 줄기차게 흐르는 가운데 번영과 풍요와 건강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새해는 꼭 희망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뉴욕목사회 회장 **최예식** 목사(뉴욕복원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새해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모든 답이 무너지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세계가 형성될 것이다.

열린 세계, 하나의 세계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하나 될 때 시작된다. 마음이 닫히지고 마음의 줄이 끊어지면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였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며 이는 머리의 윤리이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동정하는 마음이며 즉 가슴의 윤리이다. 또한 같은 뜻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손의 윤리이다. 행동의 윤리, 의지의 윤리이다.

사랑은 이해와 동정이 아닌, 생각과 마음이 뒤따르는 손을 사랑이라고 한다. 참 사랑은 봉사의 정진과 일치한다. 행위가 없는 곳에는 신앙도 생활도 없다. 우리 목표인 정의와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내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이제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모색해 보자.

이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론

희망, 아직도 있는가?

지난해에는 유독 굵직한 일들이 많았다. 좋은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은 이런 시기에 교회조차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 암흑의 시대에 교회는 세상을 활하게 비추는 빛이었고 교회 때문에 세상은 살맛나게 싱싱해졌다. 일제치하에 자리를 잡은 한국 교회 역시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손색없이 탁월한 역량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지도편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이런 시기에 우리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새해의 표어를 정하고 새해 다시금 희망을 꿈꾸고 있다. 어려움이 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희망의 실마리를 잡으려고 몸부림친다. 시인 김광규는 그의 시, '희망'에서 "희망은 결코 절망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썼다. '상실의 시대'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표현대로 요즘은 "달리나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선과 악이 뒤섞이고 가치관이 충돌하며 진짜는 침묵하는데 가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이기에 이 끈을 놓을 수 없다.

위르겐 몰트만은 2차 대전 말미에 3년여 동안 포로수용소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대변전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난 그리스도는 희망의 하나님이었다. 그는 종말론을 신학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고는 종말론을 기독교 자체이며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참된 중개자라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현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희망"이었다. 또한 그 희망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으며, 만물을 밝히 드러내면서 새 날의 시작을 기대하게 하는 찬란한 빛"과 같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 건강한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 자체가 행복해지는 데서 시작한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겠는가? 먼저 성도 개개인이 행복해져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예리히 프롬의 말대로 성도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 올해 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나 책장상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강영우 박사는 행복이 존재에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분이다. 그는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 속에는 긍정의 유전자라 뱃속 깊이 들어 있었기에 누구보다 절망할 수 있는 그가 자신의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다. 성도 개개인의 뱃속 깊이 긍정의 유전자가 싱기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교인들을 칭송하고 믿는 자가 수가 더해졌다는 말씀이 나온다.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행복과 희망을 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던 것인가? 그들은 단결하는 교회를 보았다! 초대 교인들은 한마음으로 뭉쳤고 경제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유무상통할 줄 알았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본다. 교회가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고 거기에서 희망의 줄을 붙잡는다. 세상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철저히 반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희망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교회가 어지러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희망을 잃거나, 교회조차 갈등하고 분열하며 상처를 주고받기에 바쁘다면 희망 자체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해 다시 희망을 꿈꾼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48 Hour Program
- 60 Hour Program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 DI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년메시지 2013년 새해를 맞으며...

희망의 힘으로 위기 헤쳐 나가자!

시카고교협회장 서창권 목사(시카고한인교회)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증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이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실제이며, 우리의 삶 자체를 가동하는 연료"라고 존 클레이플 목사가 그의 저서 '희망'(The Hopeful Heart)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의욕을 주며 열정을 불어넣어줍니다. 희망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며,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한민족은 희망의 힘을 의지하여 5천년 역사를 이어온 민족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기근, 역경을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700만 명의 코리아 디아스포라는 희망 하나 들고 외국에 간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희망의 열매입니다.

희망의 힘으로, 수년째 계속되는 조유의 경제 위기를 다 같이 헤쳐 나가십시오. 201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새날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필라교협 회장 박등배 목사(필라서머나교회)



힘든 환경 속에서 묵회하시는 동역자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분들을 사랑합니다.

새해는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날들입니다. 올해는 먼저 우리의 자아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둘로이 아카레이오이, KJV에서는 "We are unprofitable servants"로 NIV에서는 "We are unworthy servants"로 번역) 그리고 마태복음 25장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고 하여 똑같이 "무익한 종"(돈 아크레이온 돌론)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 차이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자아의 인식과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한 달 란트를 받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불명예스런 호칭입니다.

무익한 종은 목사, 성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목사, 성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무익한 종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핍박 받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무익한 종은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자신의 "무익한 종"으로써의 자아를 확립할 때이며 이것이 모든 것의 첫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겸손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때 최고의 믿음, 최고로 주님께 인정받고 최고의 능력자로 "이 뿔나뭇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눅17:6) 명할 때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요 내 유익을 위하여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유익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씨뿌림으로 다음세대 준비

메릴랜드교협 회장 윤종만 목사(열방비전교회)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계층간, 분야별, 인종별, 이주별로 모두 각기 자기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 터져 버릴 것만 같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2013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기적인 인간의 원리로 살지 말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제시 해주신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한해가 되어 모든 분야 계층, 이주 간에 풀리고 풀리는 화해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첫째로, 사랑의 원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같이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해에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큰 복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바꾸어 주고, 오늘을 이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기를 권고합니다.

셋째로 올해는 영적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 없는 세대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는 역사의 감각을 가지고 오늘을 참고 내일을 위해 매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요 할 일입니다. 올해도 좋은 씨를 다음 세대에게 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씨를 뿌리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좋은 씨를 뿌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너 먼저 나 다음이라며 양보의 씨를 뿌리고, 사회에서도 서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씨를 뿌릴 때, 다음 해에는 좋은 것이 풍성해지는 인생이 삶이 될 것입니다. 늘 좋은 씨를 뿌림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평화 번영 누리기를

라스베가스교협 회장 조응철 목사(갈보리장로교회)



지난간 2012년 한해를 정말 힘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201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총이 미주 크리스천신문사와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증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주어진 한 해를 잘 사용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입니다.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2년은 교회적으로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며 혀를 차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2013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조국을 위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2013년 새해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해

남가주목사회 회장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빛이오니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친 빛은 생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생명은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인간을 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격동은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 창조를 만들었습니다. 새 창조는 새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새로운 개념의 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날들은 기쁨과 소망을 주었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힘입어 하나님나라 확장되길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강대은 목사(은혜의빛장로교회)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미국과 모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체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주변 국가들이 서로 균형을 증강하고 시리아의 내전이 지속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국 간의 전투 등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총기 사고가 어느 해보다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오를랜드 지역의 오이코스대학 총기사건으로 7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북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긴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는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교민들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PCUSA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총회 결정을 함으로써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우려와 염려를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우려와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미주지역에 흩어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본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운동을 전개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2013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메시지

예수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남수** 목사(아가페장로교회)



할렐루야! 희망찬 2013년을 맞이하여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애독자 여러분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힘들었던 2012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2). 참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과거와 같지 않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이고 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회침투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희망찬 2013년을 맞이하여 미주 크리스천신문사와 애독자 여러분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최선 다하길

뉴저지교협 회장 **박상천** 목사(뉴저지소망교회)



세말에 서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지난해의 죄악들과 실수들에 관한 기억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을 허락하셔서 미래를 위한 영적 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사52:1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을 친히 호위하시고 다시 넘어져 실패하지 않도록 돌보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쁨도 잃은 채 조급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해는 주님의 품 안에 잠들게 하고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는 결심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과 화합과 하나되는 교회되길

아리조나교협 회장 **박정인** 목사(새마음성결교회)



할렐루야! 2013년이라는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아리조나의 모든 교회와 단체, 가정과 사업장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그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급년에도 늘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뜻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81:10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뜻과 소망 가운데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아리조나의 모든 단체와 교회 교민들의 연합과 일치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큰 기쁨과 위로와 성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사랑과 화합과 하나됨이 절실합니다. 2013년에는 모든 매듭을 풀고 하나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아리조나 한인커뮤니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새해 열어가야

알칸사교협 회장 **전남수** 목사(제자들교회)



코네티컷주의 총기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인명의 비극적인 살상과 시대적 종말론의 유행, 게다가 통제 불능의 가상공간의 폐해 속에 우울하게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주의 은혜가운데 새로운 2013년을 소망 가운데 열어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에 접하여 통상적인 언어를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더러 2013년에 힘써 일해야 할 당부와 다짐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신년을 열어가는데 작은 영감이 있기를 소망하며 적어봅니다.

△신년에는 정확한 성경해석에 뿌리를 둔 깊은 설교를 하자. 현실감각에 너무 예민하여 감성적 접근에 매이지 않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 깊이 뿌리를 둔 설교를 하자. △신년에는 이단교회의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매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를 하자. 특히 새벽기도의 성공을 목회의 생명줄처럼 붙들자. △신년에는 삶의 터전인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 청교도들의 신학과 삶을 연구하고 전파하자. △신년에는 이단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중의 하나가 직분론에서 발생하는 것인 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개념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교회의 행정질서를 확실히 세우자. △신년에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하도록 자질향상과 사명관식을 잘 지도하자. △신년에는 유학생들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자. 부모없이 차람을 가진 자유로운 삶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 권면하자. △신년에는 2세들에게 우리말 교육의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주자. △신년에는 이민자로서 지역 커뮤니티 가운데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하자. 한인회가 존재하지만 교회로서 6.25 혹은 광복절에 퇴역군인들을 위한 작은 식사자리라도 마련하자. △신년에는 운동을 하자.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남에게 패를 끼친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운동을 배우자. △신년에는 음악악기 하나를 배우고 항상 입술에서 찬양을 통해 급격한 스트레스의 상황 앞에 유연한 자세를 배우자. △신년에는 쉽게 분노를 나타내지 말자. 분노는 것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 회복의 해로

남가주교협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이제 2012년을 보내며, 2013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의 시작은 희망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어지는 짐이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반복되는 충격의 총격 사건과 같은 대형사건 사고들, 동성애 문제와 더불어 예수님을 찾기 어렵게 변해가는 미국 성탄절처럼 침체되는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유언비어로 오염된 SNS와 흑색 비방의 우려 속에 치러진 미국과 한국의 대선 등,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의 희망을 노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타블로라는 가수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학력에 대해 의심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프로에서 또 한국 검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 했었는데,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은 ‘진짜’로, 그의 학력위조를 주장했던 네티즌의 신원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발표도 못 믿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타블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의 복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로 새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까닭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13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될 때 주님은 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아무 것이 아닐 때 주님은 내게서 모든 것이 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이요 참된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영광으로 채워수룩 누추하고 주님 앞에서 비우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전양하며 기도하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온 세계 비추기를

미국연합감리교 감독 **정희수** 목사(위스콘신연회)



“빛을 받아 드러내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예베소서 5:14). 새해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공동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구하며, 공동의 선과 만인이 그분의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연합감리교회를 대신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은총과 기쁨의 해로 새해가 다가왔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도전과 아픔들이 난무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먹고 그분의 의와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겠노라 다짐하는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은 더 광대하고 열정적으로 세계 속에 비출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일은 행동하는 믿음을 요청합니다. 코네티컷 뉴타운의 슬픔은 바로 미국전체와 세계에 엄습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들이 함께 선택하고 결단하여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입니다.

조국의 현실에도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공동으로 꿈꾸는 평화와 화해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몸을 밝히는 빛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미주사회 전체에 부족함 없이 임하실 것을 앙망합니다. 문서선교를 통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새해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원고도착순)

청빙 (Sunday School)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EM 사역자

팜비치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석원 목사)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할 디렉터를 청빙합니다.

주일학교 사역 대상: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1. 자격: 신학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자, 영어 필수(1.5세/ 2세 선택)
2. 제출 서류: 이력서, 간증문, 사역 계획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가능)
3. 접수 마감: 2012년 12월31일
4. 연락처:
 - 담임 목사 한석원 목사: 404-435-3252
 - sukwonhan@hotmail.com
 - 교육 사역원장 채한림 장로: 561-809-0937
 - hollychae@gmail.com

• 인터뷰를 통해 하프 타임, 풀타임 조정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301 S. Olive Ave. West Palm Beach, FL 33401 (www.pbkc.org / 561-651-1198)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동역하실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주요사역: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기한: 2013년 1월 31일
- 제출처: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담임: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12
- 제출방법: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 교회주소: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 교회전화: 703-922-6064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철기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정치권이 세계경제회생 발목 잡는다!

세계 언론, 2013년 세계 경제 부정적 전망 보도

지난 연말부터 2013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힘들었던 올해를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내년에는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가며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석학들과 관련 기관들이나 언론에서 내놓는 전망은 또 다시 우울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내년 세계 경제 GDP가 올해보다 2% 줄어드는 대규모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 미국 경제 GDP가 2%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종일관 비관적 경기전망을 해온 누리엘 루비니 교수(NYU)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최소한 1%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정치의 갈등과 결단력 부재가 겨우 회생국면으로 선회한 지구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2013년은 보수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망한다(The Year of Betting Conservatively).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유가 그 원인이다.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언급된 위의 네 가지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재정긴축 대신 재정지출, 정쟁 대신 합의, 거품 대신 실적, 전쟁 대신 평화가 내년 세계 경제를 구하는 길이다.



특히 2013년 세계 정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란'이라는 점 '2013 글로벌 정치 리스크 전망' 세션에서 연사들이 한목소리로 이란

관보와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소장, 요슈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 선딩리 푸단대 행정학과장 등이 참석한 이 세션에서는 세계 정치 지형도에 청중 200여 명의 이목이 집중됐다. 연사들은 2013년의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이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최신회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경제가 단기간으로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세는 앞으로 더 둔화되고 내년에는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상승장이라고 있지만, 이는 경제지표와 동떨어진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가 가장 압박해 있는 곳은 '재정절벽' 공포가 한창인 미국이다. 재정절벽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감세조치를 비롯한 일시적인 세금감면혜택 일부가 올해 말 종료되고 내년부터 국방비를 비롯한 연방 지출 규모가 대폭 주는 것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 쪼그라들어 안 그래도 미약한 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 의회가 연내나 내년 초에 재정절벽을 차단하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는 끔찍한 것이라며 아무도 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 정치권도 제 책임을 받기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전면구제신청을 망설이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다른 채권국들은 역내 구제기금으로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은행 감독을 통합하자는 데도 반기를 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정치권의 역주행이 계속되면 최근 ECB의 조치에 힘입은 재정위기로 국제 수율(금리) 안정세는 단명하고 유로존의 침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경제개혁도 지연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치권이 수출 의존형 경제를 내수 주도형 바꾸기로 충분히 속도를 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내수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독점 체제를 깨고, 세계개혁 등에 나서야 하지만 중국 정치권은 권력 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길어질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있는 멕시코와 강력한 경기부양과 더불어 급여세 감면에 나선 브라질,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고 나라들도 있다면서 중앙은행만으로는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없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갈등, 정책결단력 부족으로 위협...미국 GDP 2% 줄어들 듯 “재정긴축→재정지출, 정쟁→합의, 거품→실적, 전쟁→평화”가 답

먼저 우선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로존의 주변국에 속하는 남유럽에서 재정긴축이 일어났지만, 침체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 국가로까지 퍼지면서 재정긴축도 확산될 것이라 짚었다. 미국 역시 심각한 재정절벽을 피한다고 해도 재정지출 축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일본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오히려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을 앞두고 양당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것을 넘어서도 양당이 합의해야 할 많은 사안이 존재하는 상태. 또한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대선을 치렀다는 점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자체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은 매우 높은 반면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저조해 주가는 올랐지만 기업의 실적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간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한국, 일본이 포괄된 아시아에서의 분쟁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그러나 2013년에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진행될 재정긴축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확산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침체기의 재정억제가 유로존과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 유로존의 핵심으로까지 퍼질 것이다.

게다가 재정, 부채, 세금, 규제 측면에서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재정에 대한 세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 우선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증세와 거대한 지출감소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2013년 재정절벽의 위험이다. 두 번째는 부채 한도를 두고 재개된 양당 간의 싸움이며, 세 번째는 중기 재정긴축을 두고 벌어지는 새로운 싸움이다. 중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카탈로니아 등 많은 국가에서 선거 혹은 정치적 이행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또한 그보다 더 거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협상과 재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 가자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랍의 봄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불길한 겨울로 바뀌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분쟁 역시 민족주의자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에서 지구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월에 열린 세계지식포럼

문제를 염려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

미 총기규제 논란 본격 점화!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격 참사 후, NRA 성명 발표로 논란 가열

450만 명의 유권자를 가진 미국총기협회(NRA)가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 규명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발언과 성명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NRA는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 이후 '침묵'을 지켰다. 지난 7월 콜로라도 주 오로라의 영화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직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성명을 낸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만큼 이번 참사의 엄청난 충격파를 짐작케 한다. NRA는 코네티컷 참사 이후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언론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런데 NRA는 갑자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전략상의 침묵 작전에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사건들이 게임이나 미디어 탓이며, 학교에서 총기 참사를 방지하려면 총기로 무장해야한다는 등 일반 여론과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내세워 미전역이 들썩거리고 있다.

미국총기협회(NRA)가 21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무장한 경찰관이나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4일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협회에서 나온 첫 구체적 입장 표명이다.

웨인 라피에르 미국총기협회 부회장은 이날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라피에르는 "애덤 란자(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 범인)를 있는 누군가가 또 다른 학교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 자원봉사자 오게인, 영화, 뮤직비디오를 통한 폭력적인 문화에 노출되었다고 미디어 매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서로 곤두박질치기 경쟁을 하듯 시민 사회의 규범을 공격하고, 위반하고, 충격에 빠뜨리기 위

해 수많은 집합체들이 경쟁한다"면서 "우리 가정에 난폭한 행동과 범죄적 잔혹성이 뒤섞인 유해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총기협회는 강력한 로비력을 보유한 대표적 총기 옹호단체다. 총기협회는 총기참사 이후 확산되는 총기 규제지지 분위기 속에서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켜왔다. 단체는 지난 18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끔찍하고 무분별한 살상의 소식이 충격, 슬픔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미있는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피에르 부회장은 이날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의 발표 동안 한 남성은 'NRA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빨간 배너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다 보안요

“총 가진 나쁜 사람 막는 방법은 총 가진 좋은 사람” 원인규명보다 책임전가...2013년 선거에도 영향 미칠 듯

를 통한 학교 보안 강화 모델에 대해서도 밝혔다. 라피에르는 또 아이들이 비디

원에 제지당했다. 그는 끌려나오는 동안에도 학교에 좋은 해답이 아니라고 외쳤다. (7면으로 계속)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정가 \$750.00+세일가 \$150.00+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남하스
2권:다~못
3권: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트델
7권: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성구들이 이해하는 단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p>미주판 2013 Immanuel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하이움 다이어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p> <p>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p>	<p>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미주전용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p> <p>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 (Medium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p>	<p>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 (Large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p> <p>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p>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오바마 4년 더...미국 어떻게 변화될까

미 언론, 오바마 집권 2기 결정짓는 4대 키워드 보도

시사전문 타임지가 2012년의 인물로 선정한 만큼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자 재선에 성공한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는 미국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2013년 본격적으로 집권 2기를 맞아 재선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향후 4년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전 4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되도록 전망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바라보고 있다.

바로 본격적인 재정적자 축소 시도, 감세에서 증세로의 전환, 탈규제에서 규제로의 변화, 다양성 포용 정책이 오바마 집권 2기를 새로운 미국으로 이끄는 4대 키워드이다.



1. 재정적자 축소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초부터 발효되는 자동적인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인 '재정절벽'이다. '재정절벽'을 해결하고 나면 채무한도 증액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채무한도는 16조4000억 달러. 하지만 미국의 누적 부채는 이미 지난

둘째, 오바마 집권 2기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온 감세와 트리클 다운(Trickle-down) 경제와 결별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의 감세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

의 길을 걸어왔고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대통령 때도 이러한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패했던 의료보험 개혁에 성공해 전 국민의 의무적인 의료보험 가입을 법제화한 '오바마케어'가 자신의 재임기간인 2014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 ①재정적자 축소 시도 ②감세에서 증세로의 전환
- ③탈규제에서 규제로의 변화 ④다양성 포용 정책

10월말 현재 16조2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2월까지의 채무한도를 다시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절벽'과 채무한도 증액은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라는 같은 문제에 기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4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매년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치권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절벽'이 발효되도록 마지노선만 만들어 놓았다.

정치권은 조만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어떤 형식으로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는 오바마 집권 2기 내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

2. 감세에서 증세로

인 때 의회가 고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부시 감세안 연장을 결정한다 해도 자신은 이 방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개 구간의 소득세율을 올리고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도 인상하는 '부자 증세안'을 내놓았다.

3. 탈규제에서 규제로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정부 개입과 규제가 강화되는 '큰 정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금융위기에 맞서 은행과 자동차업체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하지만 집권 2기 때는 위기가 아닌 일상적인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큰 정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작은 정부'

또 집권 1기 때 마련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집권 2기 때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4. 다양성 포용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때 동성애자와 불법 체류자 등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다양성 포용 정책을 통해 부시 전 대통령 때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변되는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때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또 집권 1기 때 법제화하지 못했던 이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법 개정안은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종교문화연구소)

1. 한국: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델 국가

한국이 하나님 은혜 중 선거를 잘 치러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된 것을 감사할 뿐이다. 캄보디아나 아시아 많은 나라는 선거가 형식적이거나 부정이 많고 투표과정도 한 달이 걸릴 때가 있다. 캄보디아도 내년도 총선거가 있지만 여당의 독주가 예상된다. 그래서 오바마가 공정한 선거를 주문했지만 소구에 경외감이 있다. 얼마 전 UN인권위원장이 이 나라를 방문, 훈센수상을 만나기 원했으나 노골적으로 "나는 훈계를 들어야 하는 초등학교생이 아니다"라고 면담을 거절했다. 국내외 적으로 독재, 부정부패, 선거부정, 토지분쟁 등 비판의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금년에도 독일연구소가 전 세계 175개 국가 부정부패 지수를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157등을 기록했다.



2. 세계종교학자들 한국에 관심

몇 년 전 일부 세계적 종교학자들이 한국의 종교를 연구했다. 이윤인측 한국은 종교인구가 절반을 넘으면서도 모든 종교가 비교적으로 평화적 공존을 했고, 종교가 민주화나 근대화에 발목을 잡지 않았고,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영국의 다윈주의 신학자 존 헉은 복음주의 학생운동에서 전도받고 학생 때는 열심히 신앙인 노릇을 했다. 그러나 후일 다윈주의자로 변신, 모든 종교는 같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 복음주의의 선교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아시아 종교의 사회학" 저서에서 아시아 종교로는 민주화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기독교 아시아 종교는 도리어 계급주의를 정당화하고 경제에도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아 종교는 희생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1900년도 초기 그는 한국인들도 아시아에서 욕심이 많은 백성, 그리고 "뒷세"가 강한 문화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잘못된 아시아 종교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선거를 통하여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이다.

3. 아랍의 봄이 아랍의 겨울로?

최근 타임지와 외신들은 아랍 혁명 이후를 분석하는 특집보도를 한다. 타임 특집은 분노한 아랍의 청년을 주제로 다루었다. 혁명 이후 도리어 나라들이 후퇴하고 있다고. 일본의 중동연구(2012년 2권No. 515)도 "중동변동과 선거"를 주제로 북아프리카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알제리아, 튀니지아를 다루었다.

중동의 인구는 30대 이하가 60%에 고실업률, 경제불안, 정치불안, 사회불안으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혁명 이후 중동현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이슬람의 복귀: 프랑스 인구통계학자 E. 토드는 "아랍혁명에 신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이슬람이 도리어 복귀했다. 2)독재를 물리친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주체 세력들이 이슬람을 빙자해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3)사회혼란, 정치혼란으로 경제가 더 불안해져 실업은 늘어간다.

미 총기규제 논란 본격 접화

(6면에서 계속)

한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NRA는 약 19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으며 대통령 선거 때도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에 대해 엄청난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기자 회견으로 인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난 18일 콜로라도 주 롱먼트 시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고, 이어 20일에도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3건의 총격 사건이 1시간 간격으로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이처럼 총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NRA는 그 원인을 게임과 같은 미디어의 탓

으로 돌리는가 하면, 대책으로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시장 선거에 나선 LA를 비롯한 선출직 후보자들까지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총기 사용에 등 돌린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내세우고 있을 정도이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3 새해 특별 기도성회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교육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이들은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을 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어린 이들이 많이 가진 ADHD(Adul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질병이 있다. 4)스피드(Speed) 중심의 세대이다. 왜 한국이 갑자기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경제8대 대국이고, K-pop이나 한류의 물결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의 약점이었던 “빨리빨리” 스피드 중심 가치관을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신앙적인 이슈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바나리서치의 2008년도 보도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에 비하여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더욱 더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젊은 이들의 공공장소에서 욕설은 베이비부머보다 약 4배나 많고, 혼외관계는 10배, 거짓말은 6배, 술 취함은 4배, 가슴은 2.6배, 복수는 2.5배 등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고했다. 대량학살무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은 자연스럽다. 2004년도에 보고된 한국교회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를 한 결과, 중 고등학교 70-88%가 대학에 가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자녀신앙교육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우리는 신명기의 6장의 자녀교육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분지에 연재된 강의 “신앙 세대 전수를 위한 교육원리”에서 밝혔듯이 6장 신명기 6장은 3가지 원리 1)경험의 원리 2)노출의 원리 3)환경의 원리이다.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고, 진리에 자주 노출시켜주어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해야 하는가? 어디서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학교가 사람 만드는 교육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담당교육자들은 한국의 교육이 실패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공교육이 실패하여 사교육이 판을 치는 것이다. 한국 학교에서의 교육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이념에 치우친다. 정치적 이념이 연중에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신 교권의 추락을 가지고

임이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고 확실하게 밝혀주신다. 신명기 6장 1절 “너희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로 부모에게 하신 명령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이다(신6:2). 먼저 신앙교육의 대상이 부모이지만, 또한 신앙교육의 사명도 부모에게 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앙교육은 분명한 순서가 있다. 먼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세대가 있다. 먼저 들어야 하는 일차적인 대상은 부모세대이다. 따라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책임을 절감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고, 오는 세대로 소망이 없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런 역동성을 깨닫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 등은 자녀의 교육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명명하셨다. 따라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죄이다. 그것도 큰 죄이다. 잘못된 신앙교육의 결과는 그 자녀의 생애를 걸쳐서 3-4대에 걸친 영향을 미친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교육을 하면 수천 대에 영향을 미칠 큰 투자라는 셈이다. 가장 최고의 투자는 어렸을 때에 신앙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아픔의 회개와 돌아옴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은 사무엘의 평생에 드린 헌신이다. 범죄하고 회개하여 돌아온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와 닿는 현실이지만 범죄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께 쓰임 받은 요셉과 다니엘과 디모데는 우리 신앙 교육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새해를 맞아서 부모된 사람으로 회개를 한다.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한 열매들을 자녀들이 거두기 때문이다.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 이전에 생명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지 더 중요하다. 나의 순종이 없으면, 나의 신앙의 자녀도, 나의 신앙의 손자들도 없기 때문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희망의 새해 2013년이 밝았다. 새해 새출발하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는가? 새해에는 전 세계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한다. 특별히 새해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축복하심을 간구한다.

현대는 고통당하는 시대이다 (딤후3:1)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대이다. 여러 가지 재난이 종말론적 스케일로 임한다. 기근, 지진, 전쟁, 폭풍, 쓰나미, 심지어는 사막화 현상까지 전세계적인 스케일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고통을 받는 대상은 바로 어린이들이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새로운 헌신을 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위기가 이미 왔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신앙교육을 잠자는 우리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거두는 열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난 코네티컷 뉴타운 대학살 사건이다.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야 할 어린 생명들의 당한 집단적인 폭력은 전 세계에 걸쳐서 어린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세계가 고통하지만 그 중에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함께 통곡해야 할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통곡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이런 사건을 일으킨 청년들을 키운 현대교육의 실패에 대한 통곡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주범 Adam Lanza의 악한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또

대에 살고 있다. 기근, 전쟁, 학대, 질병, 가난, 심지어는 이혼 등 수많은 재난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재난들을 통해서 예외없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연령계층이 바로 어린이들이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지도,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든 재난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능력과 준비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

신앙교육방법은 신6장 1)경험의 원리 2)노출의 원리 3)환경의 원리
신앙교육의 현장은 가정...부모 먼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디자인하셨다. 아생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람은 오랜 세월을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확장시켜 나간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하여서도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진국의 어린아이들도 형편은 다르지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을 뿐이다. 음주, 흡연, 성문제, 미혼모, 학교 폭력, 왕따, 아동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문제, 이혼 등 문제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지금의 아이들을 Z Generation이라고 부른다. Z-세대의 특징들은 1)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 ‘디지털원주민’이라고 불리운다. 2)이들은 사회적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사회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에서 교제한다. 얼굴과 이름을 숨기는 익명성 속에서 가상의 교제를 한다. 3)

에서 주일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는 심각하다. 1987년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전 성도들의 50%이었다. 하지만 2004년에는 27%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7.5%로 떨어진다. 한국교회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한때 복음의 꽃을 피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영국교회는 Peter Briely의 조사에 따르면 100년 전에는 전 인구의 80%가 성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에는 7.5%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런 추세대로 나가면 2040년에는 전인구의 0.5%만 성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주일학교 교육이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생활이 달라진다. 한국교회도 대학부가 많지 않다. 미국의 한인교회도 종교 등부는 있어도 대학부나 영어사역이 있는 교회들은 극소수이다.

우리는 교회가 신앙교육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교회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나 각종의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사람으로 세워지게 모든 힘을 다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신앙교육의 한계가 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시간상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오며 주일날 교회에 있는 2시간 정도, 한 시간 가까운 짧은 예배, 짧은 성경공부 가지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시간으로 따져도 1/84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시간을 보낸다. 보다 지혜로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경은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시나? 성경에 의하면 신앙교육의 현장은 가정이다. 성경은 교육의 책

구를 통해서 세계 어린이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의 85%가 세계의 2/3의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세계 어린이들의 70%가 불신자, 비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집이 아닌 대도시의 거리에서 살고 또 한 길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도 2월 에코노미스트지에 ‘Sickness or Symptom’라는 기사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매년 1백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와 관계한다. 또한 매년 2천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와 관계된 질병으로 죽는다. 매년 1천5백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는다. Bellamy에 의하면 2001년도 현재 세계 인구의 1/3이 15세 미만인데, 1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20만 명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임하는 재난들의 스케일이 메가 스케일, 종말론적인 스케일로 확대되는 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님: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목사님: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예배(영): 오후 8:00 대학학생부: 오후 1:45 EYM: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학생부: 오후 1:30 EYM: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yslop, MA 01748</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백스칼럼)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jpccseattle.org</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9-9049, 사역: (410)2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asc.com</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253)535-1490, 타워: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EM) 수요찬양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에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4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사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강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30(월-토) 새벽 6:00(토)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영/한)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한)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4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wclh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30분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www.lk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0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 557-1778, 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wclh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결국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조진모 목사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

새해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대망의 새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이다. 물론 새해 자체가 우리에게 자연스레 희망을 안겨다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지쳐있는 우리들이 신앙인답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걸음은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깊은 연관이 있다. 만일 복음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지녔다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단과 강조점이 다른 신학이 발생하였다.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였던 때가 있었고, 반대로 세속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현상이 혼란되어 나타남으로서 성도들의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접촉점

까지도 않고 출석하는 모습, 식지 않는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물질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습, 선교와 전도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에 근거한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성도들은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사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앙이 좋다!"

기울어야 한다.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남의 눈에 드러난 정도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나의 열심'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 헌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의 열심'은 얼마든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고 성경을 고집하는 성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 성경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고하게 붙들어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사상이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 교회, 그리고 삶을 부르짖었다. 그 결과 놀라운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다. 그들은 부두 배울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성경 자체의 가르침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온 교회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 실천한 것이다.

절을 사무실 책상, 운전대 뒷쪽, 부엌 싱크대 뒷쪽 등에 붙여놓고 암송하기 시작한다. 한 주 단위로 암송할 개수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3)가정예배를 드린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얼굴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 유명한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가정예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였다. 딤후2:8, 창18:19, 수24:15, 행10:2을 근거한 주장이었다. 나아가서 청교도들은 가정예배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것을 경고하였다. 지나치게 긴 기도와 진부한 성경나누기가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마음을 묶어 바치는 것이다. 짧게라도 적게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21세기 교회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신앙의 이름으로 비신앙인의 삶을 선택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다양성을 품는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고, 복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오류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의 형태와 가치를 규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문구에는 우리를 향해 간접적으로 고발

성경을 생활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경전과 같이 잘 모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한다.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활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는 그의 말씀과 씨름하는 수고를 기쁘게 수용해야 한다.

'대망의 새해'를 맞으면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복음과 신앙

기독교 신앙은 모두에게 주어진 종교성이 자각받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립심이 부족하여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연약한 자들의 집단 행동이 아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도덕성을 지닌 개인이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히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신앙고백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형태는 결코 획일적일 수 없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생각새와 성격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닌 신앙의 형태가 다양하다. 다양한 신앙의 형태는 복음이 지닌 포용력과

내 신앙의 현주소 점검 필수... 신앙 이름으로 비신앙의 길 선택 다반사 '나의 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 깨닫고 성경 말씀을 생활화해야

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앙의 이름으로 비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 복음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고 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자율성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다. 비록 복음이 다양성을 포용하지만 복음 자체는 다양하지 않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 또는 경험과 함께 섞이지 않는다.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의한 도전도 과감히 거부한다. 복음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의 근거다.

성경과 신앙

"신앙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성도의 삶에서 타인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평가다. 생각나는 몇 가지를 적어본다. 교회의 각종 모임에

는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한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나의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다른 헌신과 열정을 지녔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특질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대망의 새해'를 맞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열심'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도구다. 마치 거울과 같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면 자연히 '나의 열심'이 거침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성경으로부터 이탈되어있다."는 것이다. 만일 21세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성경으로부터 이탈'로 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해결책도 논쟁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19세기부터 교회를 위협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타종교가 기독교를 향해 공격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을 거부하는 동시에, 인간의 사상과 경험을 기초로 한 기독교를 세우려는 시도다. 영적 바벨탑을 쌓는 잘못된 행위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시대와 정보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세대에 맞는 신앙의 옷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세상을 읽지 못

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올해에 성경을 중심한 신앙을 실천해보자는 의미에서 잘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본다.

1)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섬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1년 성경읽기 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족 또는 가까운 분들과 함께 성경읽기 진도를 맞추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성경을 암송한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시련을 받으셨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성경 암송 실력이 마귀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몫을 담당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매일 치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세상을 읽지 못

마치는 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신앙인의 특권이다. 능력과 지혜로 섬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의 이름으로 비신앙인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망의 새해'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누리게 될 것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캐더린
Tel: (718) 359-7883, 직통: (646) 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yahoo.com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Tel: (718) 639-7788, Cell: (917) 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h4>뉴욕셋새미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Tel: (718) 464-2295, (718) 358-6225, Fax: (718) 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setsemane.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Tel: (718) 361-9199, Fax: (718) 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oskyang.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천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민 Tel: (718) 461-2810, Fax: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Tel: (718) 461-3830, CP: (718) 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p>	<h4>뉴욕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Tel: (718) 279-2757, 2758, Fax: (718) 279-1823 252-00 Hors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Website: nyjoongbo.org</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Tel: (718) 639-4044, Fax: (718) 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h4>뉴욕요지성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Tel: (718) 767-5756, 2525, Fax: (718) 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Tel: (732) 310-0022(교회), Fax: (732) 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 986-2171, Fax: (718) 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롱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 Tel: (516) 333-1757, 목사: (516) 746-4084 15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h4>베다니교회</h4> <p>담임목사: 장동찬 Tel: (973) 461-3830, 포스트: (973) 694-3880 461 Alps Rd, Wayne, NJ 07470 포스트: 430 Main St, Torr, NJ 07024</p>	<h4>여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수태 Tel: (718) 899-8309, Fax: (718) 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4>유니온연합감리교회</h4> <p>담임목사: 박태열 Tel: (732) 396-0444, 목사: (908) 518-0934 466 W. Grand Ave, Rockaway, NJ 07065 E-mail: Leongpark@gmail.com</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Tel: (718) 767-8999, borhnee@hotmail.com 70 Plandma Rd, Manhasset, NY 11030</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Tel: (732) 310-0022(교회), Fax: (732) 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규성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p>	<h4>퀸즈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Tel: (718) 627-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gospelid.org</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마이클 Tel: (516) 277-1103, Cell: (917) 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5-0009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5-0009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p>담임목사: 하경남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162-9233, 3277-3141 www.kapco.org</p>	<h4>브라질 새사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Tel: (55) 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55-PARI-SA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민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왕익상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Tel: (595) 21-574-985 E-mail: hanrkim@nammi.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p>

미국의 동성결혼에 대한 현황과 전략



새라킴 사모
(Co-Chair한인대표, TVNEXT.org)

2012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를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는 주정부 법규 안에서 9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Washington DC)까지 총 10군데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 됐다.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주들은 매사추세츠(2004), 코네티컷(2008), 아이오와(2009), 버몬트(2009), 뉴햄프셔(2010), 뉴욕(2011), 메인(2012), 메릴랜드(2012), 워싱턴(2012) 주다.

주(State)는 아니지만 콜롬비아 특별구(Washington DC 2009)와 남쪽 오리건 코스트 쪽에 있는 인디언족(2008)과 워싱턴 주에 있는 Suquamish tribe(2011) 인디언족에서 또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 됐다. 메인, 메릴랜드, 워싱턴 주들은 지난 대선이 있던 11월 6일 미국 최초로 일반투표법을 통해 주정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케이스가 됐다. 일반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주 판결, 입법부, 또는 국민투표 등 여러 법안의 절차를 밟아 법적 통과를 해야 한다.

미국 50주 전체를 볼 때 나머지 40주에서는 동성결혼을 주정부 법규상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10주), 또는 헌법상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30주). 그중에서 캘리포니아와 로드아일랜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안했지만 다른 주에 가서 동성결혼을 하고 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동성연합(civil union or partnership)이 합법화 된 주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네바다, 오레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이며, 이 주들에서는 그들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혜택도 부분적으로 해주며 모든 보호를 해준다. 뉴저지는 법적 보호뿐 아니라 동성연합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혜택을 똑같이 주고 있다.

2012년에 일어난 하이라이트(Highlights)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플랫폼: 2012년 5월 9일 미국 역사상 최초 대통령의 위치에서 버락 오바마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을 법적으로 지지함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한명씩의 남녀간의 연합을 결혼제도로 인정하는 연방부 헌법인 DOMA 또한 위헌이며 속히 폐지할 것을 판사들에게 지시했다. 이 와 함께 2012년 9월에 민주당은 "Moving America Forward: 2012 Democratic Platform" 을 통해서 동성결혼과 낙태를 정식으로 지지함을 선포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DOMA 헌법은 폐지시키고 RFMA(Respect for Marriage Act)를 지지할 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RFMA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을 합법화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며, 힐러리 클린턴이 현재 오바마와 앞장서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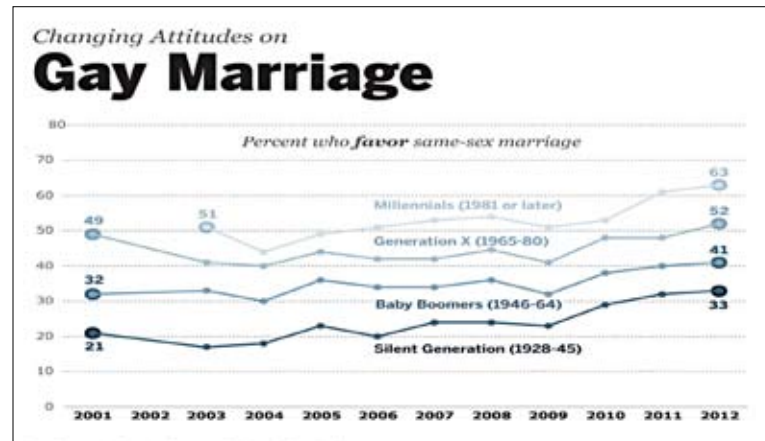
랜드와 뉴욕 그리고 워싱턴주 등 주지사도 동성결혼 찬성에 대한 싸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을 막고자 시민들과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명 운동을 펼쳐 감사기도 11월 대선 때 국민투표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지만 어렵게도 전체 국민투표에서 이기지 못했다.

주정부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채택: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은 이미 5월에 61대 39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번에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정부 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해버렸다. 따라서 지난 대선 때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버락 오바마를 2008년에는 지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롬니에게 더 많은 투표로 지지했다.

"동성결혼 금지"법에 "거부권" 행사: 미네소타는 2012년 대선 때, 아리조나 주 다음으로 처음으로 시민 투표를 통해 51대 48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거부하는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의 Prop. 8(동성결혼

반대)와 SB48(다세대대의 교육전쟁) 폐지 서명운동-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유치원생(4살)부터 고등학교생들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행동을 극히 정상적이고 동성애자들이 영웅화 시키는 등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에 대한 극히 우호적이고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교



육을 하는 것이 SB48 법안을 통해 통과됐다. SB48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해 2번에 걸친 서명운동이 있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금의 서명부족 또는 잘못된 서명들로 인해 국민투표에 포함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서명운동들을 통해 캘리포니아가 비록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음에도 기도의 용사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소망도 갖게 됐다.

2008년 동성결혼 합법화 하는 것을 Prop. 8을 통해 52.24% 대 47.76%의 시민투표로 결혼의 의미를 한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의 연합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Prop. 8을 위헌이라고 소송을 걸었던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동성애자 판사의 손을 들어주어 2012년 2월에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panel에 의해 2대 1로 7억이 넘는 캘리포니아 시민의 투표를 단 두 명의 판사가 지방법원 차원에서 무효화 시켜버리는 아픈 일이 생겨났다. 그 이후 Prop. 8에 대한 법정투쟁은 지금까지 치열하

게 계속되어오고 있다.

DOMA(Defense Of Marriage)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치열한 전쟁:

미국은 1996년 전까지, 연방정부에서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1993년 하와이 주정부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1996년에 DOMA(Defense of Marriage Act: 한명씩의 남녀간의 연합을 결혼으로 인정)를 "연방정부 헌법"으로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헌법은 대통령만의 의지로 폐지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2012년 미국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지난 10월 18일 미국의 두 번째 연방순회항소가 미국 처음 연방법원으로서 "완곡적 성적 기호 (sexual orientation)"를 사용해서 DOMA의 적법성을 논란에 부치게 됐다. 2012년 5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OMA 폐지를 판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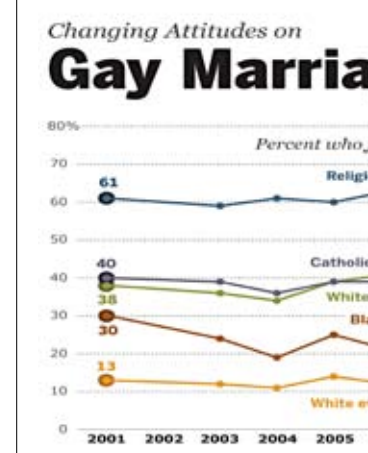
2012년 현재 동성애, 성전환자, 양성애자들까지 다 합치면 1-4% 까지로 볼 수 있다.

UCLA의 Williams Institute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12년 통계를 보면 자신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 전역의 3.8%(9억 정도) 쯤 되지만 사실상 이 퍼센트에는 1.8%의 양성애자들과 0.3%의 성전환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진짜 자신은 동성애자로 보는 숫자는 1.7%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진짜 동성애자들의 퍼센트는 2%미만에 달하는 숫자로 보고 있다.

2012년 "동성애, 동성결혼" 지지도: 2009년은 찬성이 37%, 반대가 54%였는데 현재는 찬성이 48%, 반대가 44%다(퓨리서치2012). "동성결혼"에 찬성이 53%, 반대 46%, 모름이 2%로 나왔다(갤럽2012). 2012년 월스트리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성결혼을 "적극 찬성"이 33%, "적극 반대"가 30%, "어느 정도 찬성" 18%, "어느 정도 반대" 10%, 그 외는 "모르겠다"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지지도는 민주당의 찬성이 70%, 반대는 28%이며, 무소속당(Independent)의 찬성이 60%, 반대는 37%, 공화당의 찬성이 23%, 반대는 72%다(퓨리서치2012). 주목할 것은 70%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민주당이기에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운동 반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을 잘 짚다면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이다.

2013년 전망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잘 표현해준 한 설문조사 도표 두 가지만 소개한다. 아래 도표를 의하면 1981년생 이하의 2003년에 이미 51%가 동성애를 지지했지만,



동성애 관련 통계: 2011년부터 2012년(자료: Gay Facts & Statistics in 2011-2012와 2000 센서스, 2010센서스) 일반 설문조사들을 종합해보면

2012년에는 63%가 우호적입니다. 1965년부터 19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2001년에 49%가 우호적이었고, 2012년에는 52%로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 외 중년층, 노년층 사람들의 지지도는 적어 보이지만 사실상 어린 층에 비해(12%) 중년층 또한 9%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기에 X세대인 젊은층의 3% 상승에 비하면 중년/노년 나이층의 9%에서 10%이상의 상승은 아주 큰 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어쩌면 중년/노년층들은 자신의 자녀/손자손녀들이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지지하는 요인 때문에 동성애 지지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표는 종교인 그리고 인종별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보는 조사 내용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동성애 지지는 2001년 이미 61% 지지도를 보였지만, 2012년엔 73%(12% 증가)까지 올라갔다. 가톨릭은 40%에서 53%(13% 증가), 백인 보통 기독교인들은 38%에서 52%(14% 증가), 흑인 기독교인들은 30%에서 35%(5% 증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13%에서 19%(6% 증가)로 사실상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증가 비율이 있다는 퓨리서치 설문조사의 보도다.

그냥 보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증가율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난 11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순종의 중심이기보다는 "사람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감싸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까지 사랑하고 감싸 안는 것은 성경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번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이 나왔다고 한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도 적혀있는 "Queen James"이라는 성경책이다.

결론

위의 도표들을 볼 때 결국은 비신앙인들이 아닌 신앙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과 젊은 2세 교역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다. 그리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부모세대들이다.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고 해도,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미 너무 많은 인본주의(여성의 권리, 인간의 권리 등등) 교육을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으며 또 계속 학교에서 철두철미하게 받고 있기에, 이 가치관 영적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생각된다.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양 2부예배: 오전 2:00 영양 3부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10:00 찬양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복합예배: 오전 11:45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양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화-토)	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어예배) (KCC: 한국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1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등문교회 담임목사: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금요일예배: 오후 7:45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Fuenle) / www.nachiban.org	드림 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새벽 5:30(월-금), 6:00(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후 8:00 비전대상 18세예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벤크버릴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5:15(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9:0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 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9:0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금)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얼버린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양 1부예배: 오전 11: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일)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7: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점심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토요점심예배: 365일 24시간 온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 오전 6:00 수요찬양: 오후 7:30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토)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 6부예배: 오후 11:30 주일 7부예배: 오전 10:00 주일 8부예배: 오후 8:00
요셉선교회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www.gracemc.org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창대교회 www.gpc.com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cornestonestv.com Tel: (310)530-4040 (CH), Fax: (310)530-8400 242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93	토렌스조은교회 www.torrencecc.org Tel: 310-370-5300, Fax: 310-370-2009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션스쿨의 자율운영 강화 공약 이행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종교관련 과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보수 교계와 미션스쿨들은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종교 교육권을 인정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증오범죄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재 예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아 종교 편향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션스쿨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교회 부흥의 '모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0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강익석씨와 함께 대법원 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강씨 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은 급격히 위축됐다. 박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는 사학법 개정 당시 대의투쟁을 통해 완화시킨 적이 있다”면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종교를 고려한 고교 선지원 후 추천제, 종교상의 이유에 따른 전학허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 지원도 약속했다. 또 “종교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각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교회재산에 대한 불법 명의신탁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박 당선인이 제정노력을 약속한 증오범죄처벌법은 교계가 전면 반대해온 것이다. 이 법은 '정교 분리 원칙에 의거해 상호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여기에는 불교계가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통해 유포시켜온 종교편향 논란이 바다에 깔려 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나온 '종교평화법'에 대해선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종교예산 편성에 있어 공평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불교계 지원용도인 문화재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하겠다고 공약해 불교계 편향 논란을 자초했다. 불교의 종교의식인 영산재 보전·전승 지원, 효문화역사문화공원 조성,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도 약속했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국가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종교문제에 가급적 개입해선 안 된다”면서 “선교나 포교, 종교 간 경쟁은 해당 종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지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이 특정 종교에 집중 투입될 경우 한국교회의 반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기독교 교육 결산

자살까지 부른 '따돌림·학교폭력' 교육계 최대 이슈

2012년 기독교 교육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국교육을 바라보면 한마디로 '교육고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올해 초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이슈는 '학교폭력'이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면서, 2012년 한 해 학교폭력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지난 4월 2일 기독교 교육계에서는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진단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교회학교 학생 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교회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그렇게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14.8%),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은 '장난'(39.4%)으로 보고 있고, '영상매체'가 학교폭력에 영향을 준다(55.5%)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처벌 중심과 온정주의를 넘어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생활지도 방식이 제기됐다.

또 올해는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 논란을 촉발한 강의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기독교학교(미션스쿨)에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영락교회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은 위기에 처한 기독교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석한 두 차례의 포럼을 가

졌다. 지난 4월 열린 1차 포럼에서는 한국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자유의 현실을 진단하고 11월 2차 포럼에서는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기독교 학부모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2007년 출간한 '기독교학부모교실'이라는 책을 통해 각 교회에서 기독교학부모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기독교학부모교실은 지도자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올 1월에는 자료가 보완된 개정본판이 보급됐다.

한편 입시, 사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대응을 통해 새로운 교회 문화를 꿈꾸는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이하 입시기운동)은 올해에도 '수능 기도회, 이렇게 바꾸자' 자료집을 전국 교회에 배포, 기록적 수능기도회에서 성경적 수능기도회로의 전환에 힘썼다. 뿐만 아니라 올해 최초로 기독교적 관점을 담은 입시설명회에 도전,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를 위한 제1회 비전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밀리의 실험, 가정과 상상에 근거”

생명기원 관련...교진추 개정 청원

생명의 기원에 관한 최초의 실험으로 알려진 '밀리의 실험'을 수록한 국내 교과서는 잘못됐으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새)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회장 이광원)는 지난 18일 2011년도 고등학교교육 '과학' 교과서 개정에 대한 청원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학적 진화는 생명의 탄생과는 관련이 없다-밀리 실험과 종합반응

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청원서에는 전·현직 대학교수(대표 김성현) 85명, 중등과학교사(대표 서연석) 67명, 초등교사(대표 이세형) 23명 등 과학 관련 교육자 175명의 의견을 담았다.

이들은 현재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생명의 탄생'에 관한 화학적 진화의 기술내용은 가정과 상상에 근거한 것이며 오늘날의 학술적 연구 내용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학적 진화설을 삭제해야 하며,

만일 삭제가 어려우면 '화학적 진화설은 실험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특히 밀리의 실험은 생명의 탄생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학자들은 '밀리의 실험'의 문제점으로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설은 생명탄생에 관한 일종의 자연발생설로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된 파스퇴르의 생물속생설과 상충 △인시 대기 성분이 강 환원성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유기물로부터 생명체의 합성이론을 펼치기 위해 설정한 가설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하면 원시 대기는 일정 수준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형 대기 △산

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합성이 아니라 산화와 같은 분해 작용 발생 △밀리의 실험은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정교하게 제어된 조건 아래 수행된 화학반응으로 자연계에서의 생명의 탄생과는 관련이 없다 △밀리의 실험에서 합성한 아미노산과 오탄당은 모두 라세미 혼합물, 라세미 혼합물은 생체 고분자(단백질·핵산)의 구성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밀리의 실험은 생명의 탄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중합에 의한 고분자의 합성은 자연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없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승자·패자 모두 국가·국민 위한 일에 뜻 모아야”

교회언론회 대선 관련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국민은 안정 속에 개혁을 선택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국민들은 다른 정책보다 안보를 더 중요시했다"며 "국가안보 보장 없이는 경제나 복지도 불안하다는 것을 표(票)로써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또 "이번 대선은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 이는 정치 선진국인 미국이나 가부장적인 국동의 국가들도 이뤄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선거의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승자도 패자도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하나로 뜻을 모아야 한다"며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그를 지지한 국민의 마음

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패자의 정책까지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평은 특히 "민생을 위한 정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 국민대통합의 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정수행의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하나'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정치처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이뤄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논평은 패자 측에게도 "깨끗한 승복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어떠한 구실로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 같은 국가적 난국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 문화계 2012 총결산

CCM·뮤지컬 날고 영화·미술 날갯짓

2012년 기독교 문화계는 풍성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교회음악 저작권 관심 집중, 소항의 '나 가수' 진출, 팝가수 레이디가가의 내한 공연 찬반논쟁, 입소문을 만들어낸 뮤지컬 '엔틸더데이'의 기적... 올해 기독교 음악과 공연, 영화·미술을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CCM, 교회를 넘어서다=단연 이슈는 '나 가수'에 출연한 소항의 도전이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가수 임재범의 무대를 빛낸 CCM 그룹 헤리티지 역시 올해도 유명 가수들의 앨범 피쳐링에 참여하는 등 활발했다. '위탄3'에 출연한 조선영씨가 헤리티지 출신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룹은 더 유명해졌다. 또 CCM듀오 '시와그림'의 뮤직비디오 '여호와와 유월절'이 미국 기독교독립영화제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씨뮤직 페스티벌, 빅콰이어 콘서트, 프리덤 집회, CCM 슈퍼 콘

서트 등 연합 공연도 잇따랐고 사역자들의 새 앨범 발표도 이어졌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가스펠스타C, CCM루키 등 오디션 프로그램은 상급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의 실력, 멘토들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리를 잡았다.

◇미술·영화 도약하다=기독교 미술계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왕성한 전시활동 및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주목할 것은 외연 확장에만 머문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알리는 본질 찾기에 노력했다는 점. 세상으로 뻗어나가던 기독교 미술이 발길을 돌려 교회로 돌아왔다.

◇뮤지컬, '숨은 진주'를 찾다=대표적인 작품은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엔틸더데이'다.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이래 1년 동안 2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이 작품은 10월 탈북민 출신의 오진하 감독이 연출을 맡으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소재로 한 작품 '우연히 행복해지다'(우행) 역시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이다. 문화동아트리 1.1.1프로젝트인 뮤지컬 'ABBA'는 전화(23회) 매진을 기록했다.

이들 작품 외에도 '요나이야기' '반반있습니까' '마리아 마리아' '바울' 등 기독교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공연을 본 많은 관객들은 작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놓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작품은 고전 중이다. '기독교 작품은 공짜로 봐도 된다'는 인식부터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기독교복합문화공간 '필름포럼'이 개관한 것이다. 필름포럼은 기독교 영화 상영뿐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문화사역의 장, 기독교 문화운동을 위한 연구 및 콘텐츠 생산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 작품 외에도 '요나이야기' '반반있습니까' '마리아 마리아' '바울' 등 기독교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공연을 본 많은 관객들은 작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놓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작품은 고전 중이다. '기독교 작품은 공짜로 봐도 된다'는 인식부터 전환할 필요가 있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년말연시를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 어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 분 이름	한글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_____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신년하례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 2013년 신년하례예배가 1월 14일(월)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별관에서 열린다.
▲문의: (718)358-0074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하례 예배가 1월 1일(화) 오전 11시에 열리며 2013년도 제직수련회는 1월 11일(금)부터 13일(주)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장영춘 목사.
▲문의: (718)886-4040

패밀리터치 시니어 스케치 작품 전시회

패밀리터치(소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제 3회 시니어 스케치 작품 전시회가 뉴저지 레오니아에 있는 패밀리터치 본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시니어들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 20여점이 올 12월 31일까지 전시된다. 지난 20일에는 시니어 포럼으로 모여 영화 감상도 진행했다.
▲연락처: (201)242-4422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임시총회 새회장 박진하 목사, 부회장 전희수 목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박진하 목사, 부회장에 전희수 목사를 선출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임원은 자문위원 김인한 장로의 공천에 따라 결정됐다. 박진하 목사는 “기아대책 회장은 봉사직으로 생각한다. 아동후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알려져 협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하 목사는 “기아대책 회장은 봉사직으로 생각한다. 아동후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알려져 협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회장은 콜롬비아 아동센터 건립 시드머니 1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알리며 내년엔 현지 방문을 계획하자고 건의했다.

회계감사보고는 △수입: 아동후원금 27,482,557달러, 일반 16,808,088달러 △지출: 아동후원금 21,070,257달러, 일반 15,026,866달러 △잔고: 아동후원금 6,403,400달러, 일반 1,781,222달러로 했다.

동 기구의 모든 소식은 홈페이지(www.Eafh.org)를 통해 공고한다

고 밝혔다.

이날 선교사 2명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국 기아대책이 파송한 이상필 선교사는 대북사업 담당자로 평양 병원과 함북 빵공장 등에서 사역했으며 내년 3월중 가족과 함께 중국점점 두만강 기술학교에서 사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욕을 방문 중인 연변 희망촌 이윤식 선교사도 소개됐다. 김영환 목사는 한국방문 시에 전도한 강도도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캐더린권 목사, 말씀 황영진 목사, 축도 김영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행11:17-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탄의 계절에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기쁨보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기아대책은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말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과 떡을 전하는 기아대책의 사역을 열심히 하자”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성탄찬양예배 “천지창조” 공연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지난 23일 오후 4시에 드린 성탄찬양예배에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공연했다. 본 교회 찬양부 임마누엘,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찬양대와 관현악부가 오랜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연합찬양대의 공연은 전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번 “천지창조”는 동 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성탄찬양예배에서 네 번째로 공연된 것으로 그동안 주로 “메시아”와 크리스마스 칸타타, 뮤지컬 등을 공연해왔다.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낙원장로교회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제시유 해피 크리스마스콘서트’ 주제로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가 지난 22일 저녁 ‘제시유 해피 크리스마스 콘서트’ 주제로 뉴욕낙원장로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렸다.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 사회로 다양한 악기 연주자 제시유, 김봉규 찬양인도자, 강여진 찬양사역자, 손사랑 수화찬양팀들이 출연했으며 연주는 피아노 이한나, 베이스 이진우, 기타 박지호, 드럼 이진하 등이 맡았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증경회장단 부부초청 만찬

뉴저지교협 증경회장단 부부초청 만찬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지난 19일 정오 증경회장단 부부초청 만찬을 가졌다.

‘풍림식당’에서 열린 만찬에는 3대 윤명호 목사, 4대 김창길 목사, 6대 정성만 목사, 7대 신의철 목사, 12대 김정문 목사, 14대 강세대 목사, 19대 박찬순 목사, 20대 허상회 목사, 21대 정창수 목사, 25대 유재도 목사가 참석했다. 또 뉴저지 교계의 원로 김용주 목사와 김용남 목사가 참석했다.

회장 박상천 목사의 인사말에 이

어 이상일 목사(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윤명호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윤 목사는 한국 대선 하루 전이라 영적 양육과 함께 조국에 대한 애국을 강조했으며 자체 건물 교회는 태극기 게양을, 임대 교회는 조국 국경일에 애국가 합창을 권고했다. 이어 김용주 목사가 조국을 위해, 김용남 목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방송 2012 후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희망의 방송, 복음의 방송으로” 미주기독교방송 2012 후원감사예배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2012 후원감사예배가 지난 18일 저녁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식사와 후원감사, 3부 찬양제로 나눠 진행됐다.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는 “KCBN을 1년 동안 기도하고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미주에서 세계로 희망의 방송, 복음의 방송을 통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뉴욕찬양마을의 경배와 찬양, NYCSO 앙상블의 연주, 이풍삼 목사의 기도, 밀알앤드밴드피아어의 특별연주, 손성대 장로의 성경봉독, 문진영 소프라노의 특송, 김종훈 뉴욕교협회장 설교, KCBN 동영상 상영, 헌금송 배영란 소프라노, 헌금기도 황영진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김종훈 목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신8: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명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라며 “광야는 보물찾기 같이 신비한 곳으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뤄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 KCBN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금강산과 김철원 로펌, 가나 잔치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찬양제는 오영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소프라노 안주연, 문진영과 뉴욕장로성가단, 에이레네여성중창단,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의 합창과 정인국 원장의 토크 연주, 필그림선교 무용단의 무용이 있었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은혜가든 앙로원서 성탄 무료음악회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20일 뉴저지 은혜가든 앙로원을 찾아 노인들을 위한 무료 성탄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올해 이노비가 은혜가든에서 연 세 번째 무료 음악회로, 연말연시를 맞아 한인 노인들에게 즐거운 캐롤과 고향의 봄, 애국가 등을 함께 부르며 따뜻하고도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는 줄리아드 출신의 소프라노 김현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원, 오보에에 스타 윌렛과 예일대 출신의 테너 여강제, 그리고 이번 공연의 음악감독이자 피아니스트인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박영이 참여해 수준 높은 연주를 보였다.

이번 공연은 뉴욕 총영사관 김형길 부총영사 등이 참석해 노인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연문의는 happiness@enob.org 또는 (212)249-4438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혜성 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교신문을 창간하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쿨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태처럼 얽혀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쿨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쿨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이.야.기

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팅크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극증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지역사회와 함께 예수님 사랑 나누다 미주사랑의쌀나눔운동 주최 2012성탄절 나눔잔치

미주사랑의쌀나눔운동 주최 2012 성탄절 사랑의쌀 개인 나눔 잔치가 22일 11시 LA총영사관을 비롯 남가주 5곳에서 일제히 열려 총 2900포의 나눔의 기쁨을 선사했다.



2012 성탄절 사랑의 쌀 개인 나눔잔치에 참가한 할머니가 쌀을 전달받고 있다

이날 열린 나눔잔치는 LA총영사관(LA총영사관과 성시화운동본부 주최)에서 750포, 나성순복음교회(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교협 주관)에서 600포, 나성동산교회(코리아타운, 선교지, 교회단체 주관)에서 600포, 에브리데이교회(캘리포니아 연립, 에브리데이교회 주관)에서 450포, 미주평안교회(코리아타운, 사회봉사단체 주관)에서 450포를 각각 배부했다.

한기형 감독은 “예수님 사랑의 삶과 피를 생각하면서 2013년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축복의 날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유철 남가주 교협회장은 “은 교포가 한 마음 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 더불어 남가주 각 지역교회와 동참해준 지역교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그레이스리(Asian Professional Exchange)는 “이번 사랑의쌀 나눔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만 풍족한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나누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한 시간씩만 투자해도 다른 분들도 함께 행복 할 수 있다. 받은 축복은 함께 나누어 다함께 축복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차 나눔잔치는 12월 29일(토) 오전 11시부터 남가주 10곳에서 열리게 되며 이날은 3,750포의 쌀이 나눠지게 된다.(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재단 미주한인 110주년 기념행사 내년 1월13일 우정의종 타종식, 연합감사예배와 대합창제 등

미주한인재단(전국 총회장 박상원 장로)이 지난 17일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주한인 1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발표했다.



미주한인재단은 2012 임시총회에서 2013년 1월에 개최되는 미주한인 1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미주한인재단 측은 내년 1월 13일(주) 우정의종 타종식, 같은 날 of LA에서 연합감사예배와 대합창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



민는사람들과 함께하는 홀리원 콘서트 두번째 무대가 카페메네에서 열리고 있다

민는사람들 주최 홀리원 콘서트 대성황

민는사람들(공동운영자 제레미 박, 폴 황)이 주최한 홀리원 콘서트 두 번째 무대가 18일 저녁 7시30분 타운내 카페메네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콘서트는 랜디킴 밴드가 현란한 전자기타 연주가 가미된 하드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베네스다 대학교 학생이아팀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또한 이 학교 학생인 우성영 씨가 헨델의 오페라 ‘졸리오 체사레’ 중 ‘piangero la sorte mia’를 불렀으며 가족이 팀으로 구성된 클라라 김과 엘리스 신이 가수 최윤영, 조셉밴드 등과 스키드로우 찬양팀이 출연해 수준 높은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루돌프사슴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랜디킴 밴드, 베네스다대학교 음악과 학생과 이어, 김성아 전도사, 클라라김, 엘리스 신, 피아니스트 강혜정 씨, CCM 가수 최윤영, 조셉밴드 등과 스키드로우 찬양팀이 출연해 수준 높은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특히 이날 콘서트는 랜디킴 밴드가 현란한 전자기타 연주가 가미된 하드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베네스다 대학교 학생이아팀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또한 이 학교 학생인 우성영 씨가 헨델의 오페라 ‘졸리오 체사레’ 중 ‘piangero la sorte mia’를 불렀으며 가족이 팀으로 구성된 클라라 김과 엘리스 신이 가수 최윤영, 조셉밴드 등과 스키드로우 찬양팀이 출연해 수준 높은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월드쉐어 주최 홈리스들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월드쉐어(대표 양윤 목사) 주최 홈리스들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2일 오후 1시30분 오벌이어선교회(대표 이준 목사) 특별무대에서 마련돼 연말 홈리스들이 따뜻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쉐어주최 홈리스들의 크리스마스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따뜻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쉐어(대표 양윤 목사) 주최 홈리스들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2일 오후 1시30분 오벌이어선교회(대표 이준 목사) 특별무대에서 마련돼 연말 홈리스들이 따뜻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월드쉐어

와 관계를 맺고 있는 노숙자들이 한 달 전부터 모여 밴드와 노래연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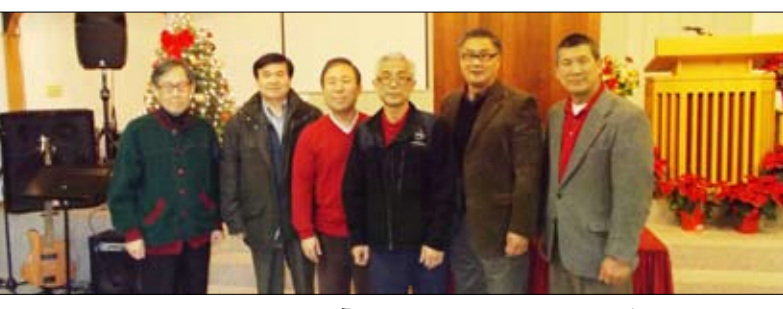
한마음교회 주최 2012 크리스마스 축하음악회 성황



한마음교회 주최 2012크리스마스 축하 음악회에서 본교회 찬양대가 합창하고있다

지난 15일 저녁 7시 한마음교회(담임 심상래 목사) 주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2 크리스마스 축하음악회’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마음교회 찬양대, 목사장로부 부찬양단, 조이플선교중앙단, LA사랑의부부 합창단, 승평칸테모스, 소프라노 강재신, 바리톤 강영호, 테너 박환, Piano Duet 의 Nyla & Mia Shelton 등이 참가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훈훈한 사랑과 정을 나누었다.

한마음교회 주최 2012크리스마스 축하 음악회에서 본교회 찬양대가 합창하고있다



제15차오레곤 한인교회 장로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신임임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레곤한인교회장로회 신임회장에 진점인 제15차 정기총회, 부회장 위인호 장로 선출

오레곤 한인교회 장로회는 20일 오후 7시 오레곤선교교회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회장에 진점인 장로(벤엘장로교회), 부

회장에 위인호 장로(빌리지침례교회), 감사에 오정방 장로(은누리성결교회)와 이사장에 이석영 장로(포트랜드영락교회), 부이사장에 홍정기 장로(오레곤선교교회)를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1부 예배는 강재원 목사(은누리성결교회 담임)가 벤전 5:1-4를 본문으로 “장로는 양마리의 분이 돼야 하고 예수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돼야 하며 목회자나 장로들은 영성과 전성성, 도덕성을 갖추고 리더십보다는 펠로십이 되어 목회자와 함께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동역하며 세상을 함께 변화시키자”고 설교했다. (기사제공: 오레곤한인교회장로회)

‘사람을 품으라’ 박희민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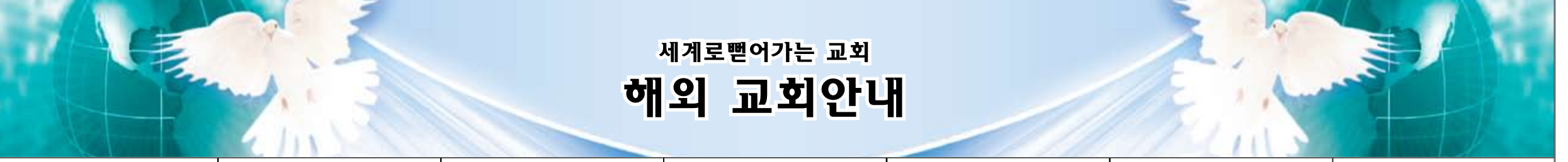
박희민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20일 오전 7시30분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드려졌다. 오상철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송병령 목사(남가주동

신교회) 기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설교, 박성민 목사(아주사퍼시픽신학대학교수), 최경욱 목사(포감사선교회), 임윤택 목사(풀리신학대학교수)가 ‘내가 본 박

희민 목사를 소개했으며 이날 축송엔 유은녀 사모, 축사에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와 장도원 장로(포감사선교회), 축도는 김대순 목사(가나안교회 원로)가 맡았다. 말씀을 선포한 강준민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왕하4:9)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박희민 목사는 교계와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로 은퇴 후의 삶이 아름답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치하하며 말씀을 전했다.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박희민목사(앞줄 좌측 세번째)와 교계 단체장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날 콘서트는 랜디킴 밴드가 현란한 전자기타 연주가 가미된 하드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베네스다 대학교 학생이아팀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또한 이 학교 학생인 우성영 씨가 헨델의 오페라 ‘졸리오 체사레’ 중 ‘piangero la sorte mia’를 불렀으며 가족이 팀으로 구성된 클라라 김과 엘리스 신이 가수 최윤영, 조셉밴드 등과 스키드로우 찬양팀이 출연해 수준 높은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18-1, (612-824)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독성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지구 북동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로1번지 북부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전 11:00, 7: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14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길동3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3 (152-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기예배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평선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찬양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3 (152-05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0-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 713-26호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5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암동 416-4(404-270)	승평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죽전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월-토)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20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시 이천읍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암동 415 서울시 양천구 목동3 713-26호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결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2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동 194-1(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서성동 239-1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시 이천읍 302-67 (140-031)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읍 302-67 (140-031)

기독교문학소설

《윤》이라는 다른 이야기 (18)



정중해 박사 (문학인)

“잘됐네요. 오 집사님은 원래부터 착실한 분이니까. 어딜 가서도 야무지고 명랑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허 선생님 말을 해놓고 한 번 슬쩍 그 분의 마음을 떠보았지요. 반응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허 선생님의 진지한 성격을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혼자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 허 선생님 같이 착실한 분이 프로포즈 해오면 재혼할 생각도 있다고 했어요.”

무영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윤 목사의 이야기가 좀 당혹하기는 해도 그리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 처한 지 이제 겨우 일 년밖에 안되었는데 다른 여자로부터 벌써 러브 콜을 받은 격이라, 무영은 다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전 당분간, 아니, 이대로 몇 년간 더 혼자 살아 볼래요. 오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만 보아주시니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라 놀랐지요? 오늘 당장 결정하시란 말은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더 생각해보시라는 거지. 이제 허 선생님께도 그런 좋은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걸 이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무튼 저에게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에 두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생각해보게요.”

“허 선생님을 보면 늘 성경에 나오는 음을 상하게 되는군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온갖 불행이 당하고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었던 그 음이란 사람을 알지요?”

무영은 윤 목사가 지난번에 하던 그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한 감이 들었으나 조금도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구역성경에 나오는 또 그 음이 이야기죠?”라고 대답했다.

“그렇지요. 나중에 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약탈당했던 가산을 배로 갚아주고 죽었던 자식들 수만명 다시 새로운 자녀를 얻도록 축복해주셨지요? 난 하나님이 허 선생님에게도 잃어버린 짝을 다시 구해주실 날이 오리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영은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상실하고 실망이 컸지만 아직까지 열은 신앙심으로나마 계속 교회에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기를 좋아하는 음의 축복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다.

“감사해요. 목사님. 하루를 살아도 무엇에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전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지 알고자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런! 허 선생님의 신앙의 단수가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어요.” “다 목사님이 지도해주신 덕분입니다.” “허 선생님은 아직 젊으셔. 예수 믿는 사람이 홀아비로 피폐하게 살지 말고 다시 새 가정을 이루어 잘 사셔야.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반드시 건강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바라는 살아야 되겠지요. 목사님?” “그렇지요. 그 말이 맞아요. 다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영은 식당을 나오면서 윤 목사의 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 일로 목사님이 시카고까지 다녀오시고 식당에 데리고 와서 조찬까지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한다고 공손히 사례를 하고 헤어졌다.

그날 윤 목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무영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토요일이라 집필의 잔디도 깎고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집안일도 정리하려 했으나 마음이 어수선하여 좀처럼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딸들을 불렀다. 오후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아빠와 같이 후술가에 있는 공원에 나가자고 제안했다. 딸들은 가족들과 좀체 소풍을 가지 않던 아빠가 모처럼 이런 제안을 하자 다들 기꺼이 응하기로 했다. 홀아비가 된 아버지를 늘 측은하게 여겨오던 중이라, 두 딸은 아버지가 좋아하시지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드리고 싶었다. 무영은 또 무영대로 어미가 없는 두 딸 자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앞으로 어머니가 없어도 기죽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고 격려하고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호수와 인접해 있는 공원은 그날따라 날씨가 좀 무덥기는 해도 가지가 우거진 거대한 고목들이 여기저기 비치던 피크닉 테이블 위에 시원한 그립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멀찍이 보이는 선장가에는 뱃을 내라고 정박해 있는 흰 세일보트들이 가벼운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호수 안쪽으로 쭉 내민 선창에는 낚시대를 드리우고 초조하게 물속을 내려다보고 있는 낚시꾼들도 보였다. 무영은 오래 전에 미국에 이주해왔지만 이런 한가로운 정경을 즐겨보지 못하고 살아온 자기의 바쁜 이민 생활을 회고해 보았다. 가정으로서 아내와 자식들과 이런 느긋한 생활을 왜 한 번도 못해봤을까 후회를 해보는 것이다.

공원에 가지고 나온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아이스박스에서 음료수를 한 강동 더 꺼내 마시면서 무영은 큰 딸 영란에게 그날 아침 식당에서 윤 목사와 대담한 내용을 넘겨서 언급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마음의 즐거움(잠17:15-28)찬427장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정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 가정생활에 지혜자의 삶이 나타나야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라고 한 것은 제자화 된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의 본으로서의 부모 역할을 힘써야합니다. 둘째, 사회생활에도 공의를 세워야합니다. 재판할 때 의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15,23,26).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까닭은 그의 권속들이 모두 공도와 의를 행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의를 세우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가정과 사회에서 의의 생활은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간직하는 것이 우선이어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성령의 기쁨으로 존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새해가 되게 합시다.

화 거룩한 덕담(잠18:1-12)찬431장

이웃의 덕을 세우는 말이 신자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덕을 끼칠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를 살피야합니다. 언어생활의 불결을 깨닫은 이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가 맛 본 은혜였습니다(사6:5).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여과로 분별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을 금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엡5:3). 그러하면 말씀의 목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덕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덕담은 복음을 말하고 그 생활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선덕사(宣德師)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벧전2:9).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값없이 얻은 위로와 권면과 책망을 우리 형제에게 그대로 해야 합니다. 새해는 덕을 많이 끼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수 여호와의 뜻(잠19:15-29)찬499장

잠언의 다양한 내용은 마치 잘 짜여진 옷감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을 중심으로 모든 방면에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공평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자녀교육,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하나님 경외신앙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21절에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확증하십니다. 이 말은 계획을 세울 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중심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요란한 주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아무리 요동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임을 믿고 현실을 그분의 때에 맞추어 조심해서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야 참 평안이 있고 인생의 살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롬8:28).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진실이 언행심사에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목 술 취함의 교훈(잠20:1-15)찬177장

성경은 포도주를 약(잠25:23)으로는 허용하지만 술 취함은 엄격하게 금합니다. 술에 반박하지 않는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했고 술은 마음이 곤고한 자의 것이기에 왕은 금해야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에서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기에 거기 유혹된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겸손하게 됩니다. 둘째,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의 지혜를 둔하게 합니다. 술 취함으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임 당한 나담, 아비후의 경우를 생각할 때 신약 제사장인 신자는 더욱 더 술취함을 금해야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바른 정신으로 감격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엡5:18). 여호와 경외 신앙자는 성령 은혜에 취해 사는 매력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충만한 새해를 향하십시오.

금 입술의 열매(18:13-24)찬177장

본문 21-22절의 언어사용은 하나님의 형상 중 중요한 기능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은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첫째, 생사가 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생사를 가능하는 복음을 말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말로 전도하게 하시고 말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입술이 변하여 바른 말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이 말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병을 이긴다는 말씀대로(14) 하나님 말씀에 이끌린 마음에서 나온 말이 자기도 치료하고 이웃도 치료합니다. 보혈로 씻은 받은 정결한 마음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약속된 성령 부으심은 말의 은사인 예언으로 표현됐습니다(행2:17). 성령에 이끌린 말을 하기위해 말씀묵상에 힘씁시다.

토 용서생활(잠19:1-14)찬343장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자의 영광이라”(11). 일상에서의 용서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치 않는 마음은 용서할 처럼 솟아올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약1:19). 둘째, 여호와 경외신앙을 힘써야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께 일단 달란트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백 데나리온의 빛을 용서 못한다면 배은망덕 하는 죄를 범하는 셈이 됩니다. 셋째, 용서는 더 큰 용서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한 없이 용서할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따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약2:13).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주석/강해/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들이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2013년 달력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장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타니엘 전자성경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문의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621 S. Virgil Ave. Suite 200 L. A., CA 90005 213-925-5434

신년축하광고

Happy New Yea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323)939-7323
Fax.(323)939-165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헌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714)826-6245
Fax.(714)826-6187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박용덕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el. (714)401-9874
Fax.(562)947-1760

남가주왕성교회

담임목사 : 안경찬

2500 Wilshire Blvd #700
L.A., CA 90057

Tel.(213)819-881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찬

491 Alps Rd,
Wayne, NJ 07470

웨인:(973)694-3880
포트리:(973)694-388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벤엘장로교회

담임목사 :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결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301 S. Kingsley Dr.2F-B
L.A., CA 90020

Tel. (213)245-4090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규성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운영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739-8824
Fax : (213)739-8821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718)353-3159
Fax.(718)353-31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강 사 •



김성길 목사
• 시온소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송웅결 목사
• 신천교회



현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명섭 목사
• 불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교회



김만영 목사
• 친구들교회



김순식 목사
• 김재 중앙장로교회



김구경 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 일 시 2012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 성지순례,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으로 현지 공항에서 영접하여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 (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 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계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 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